



박종도 (주)윤일문화 대표이사

33명의 교수들과 한국철학사전 기획 발행 “한국철학 제대로 알리는 계기 만들 것”

‘문화’가 좋아 인재를 하게 되었다는 박종도 (주)윤일문화 대표이사가 최근 큰 일을 해냈다. 바로 ‘한국철학사전’을 기획 발행한 것이다. 세계철학에 비해 한국철학은 체계화되지 않았고 홍보도 부족해 한국철학=무속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 한국철학사전을 발행하게 되었다고. 박종도 대표이사를 만나 한국철학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한국철학사전에 대해 들어보았다.

회사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주)윤일문화라고 하는 인쇄회사와 윤일커뮤니케이션, 도서출판 동방의 빛 이렇게 3개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책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책을 만든다.”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모든 것을 책에서 얻기 때문입니다. 유익한 책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젊었을 때부터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출판사 창업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91년도부터 인쇄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쇄문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쇄, 출판이 문화사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자부심으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우리 인쇄인들은 여건은 힘들고 어려워 마음 아프지만 ‘문화사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문화를 강조하시는데, 문화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라는 것은 이 시대의 모든 가치, 풍습, 생활습관, 양식 이러한 것들이 다음세대로 계승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5천년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민족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는 정신활동의 소산이자, 지식과 지혜의 보고이며, 삶의 원천입니다. 우리나라가 역사상 수많은 외침을 물리치고 숭한 위기와 혼란을 이겨내고서 세계 일류 국가의 반열에 우뚝 설 수 있었던 힘은 한국인의 풍부한 문화적 유전인자와 탁월한 영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일류국가의 반열에 든 것이 우리나라의 철학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한국철학은 무엇입니까? 또한 한국철학은 어떠한 입장에서 바라 봐야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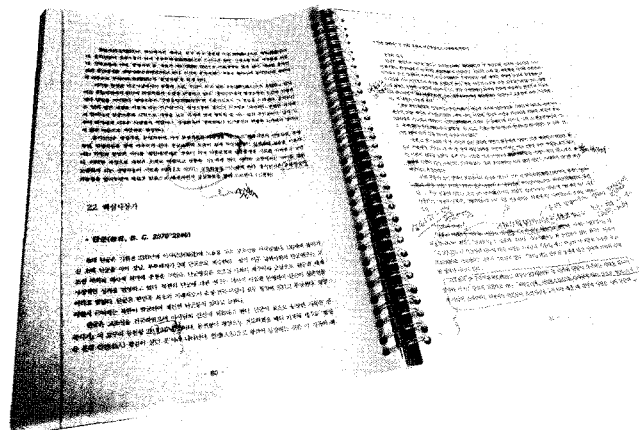
한국의 철학은 우주의 철학입니다. 한국인은 우주의 근본적인 원리에 관한 문제를 인생의 근본적인 원리에 관한 문제로 인식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인간과 만물이 그 속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생멸(生滅)하는가를 철학으로 삼았습니다. 즉 한국 철학은 우주 자연의 이치인 천도(天道)를 바탕으로 인사(人事)를 밝힌 철학인 것입니다.

또한 한국철학은 근본적이고 종합적이고 포괄적입니다. 건국이념인 홍익인간은 한 나라에 국한되는 이념이 아닌 하늘의 마음이며, 우주심(宇宙心)이며, 공동선(公同善)입니다. 이는 오천 년의 역사 속에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면

면이 이어지면서 닦이고 닦이어 ‘길(道理)’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늘과 상통함이고, 천인합일(天人合一)의 우주학(宇宙學)이요, 한국철학인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서양철학의 영향력은 수천 년 간 이어온 우리의 전통 철학에 비해 압도적으로 크고 강합니다. 또한 자라나는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이 제도권에서 서양의 학문을 배우고, 가르치고, 연구하기 때문에 서양철학에 대해서는 서양사람 이상으로 잘 알고 있지만 한국철학에 대해서는 낯설고 생소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것에 대한 소홀함과 홀대함이 문화와 철학, 학문을 넘어서 민족의 정신적인 뿌리인 혼과 얼, 정기마저 잃고 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심지어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를 만들고도 한국 같은 나라에서 어떻게 구텐베르크보다 앞선 발명을 했겠냐는 의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2008년 서울에서 스물 두 번째 세계철학대회가 열렸습니다. ‘철학자들의 올림픽’이라 할 수 있는 이 대회는 1900년 프랑스 파리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유럽과 미주에서만 열려오다 2008년 아시아권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108년 만에 한국의 철학이 불교, 유교, 도교 등 정식 분과로 채택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인쇄, 출판인의 사명감과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전통적인 생활과 문화, 철학 그리고 역사를 근본적이고 주체적으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뜻을 같이해주신 교수님들의 열정으로 <한국철학사전>을 발간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한국철학사전>을 발간하면서 한국의 독창성을 부정하고 서양과 중국사상의 수용만을 고집하는 ‘수입 오포상’과 학문적 보편성과 객관성을 갖지 못한 채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라고 아집을 부리는 ‘고물상’을 모두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한국철학사전의 교정을 맡은 박종도 대표의 빼곡한 교정이 인상적이다.



박종도 대표가 한국철학사전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있다.

〈한국철학사전〉의 편집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20년 동안 하버마스와 데리라를 비롯한 2000여명에 달하는 세계적인 석학들을 초빙하여 공공철학의 길을 모색해 온 공공철학 교토포럼의 김태창 공동연구소장의 제안으로 모였습니다. 단군사상과 민족종교분야는 김용환 충북대 교수가, 고대사상과 삼국시대 사상에 대해서는 이도흙 한양대 교수가, 불교철학에 대해서는 조은수 서울대 교수와 김천학 금강대 교수가, 유교와 실학사상에 대해서는 이기동 성균관대 교수가, 기독교 사상에 대해서는 이정배 한신대 교수가 편찬 및 집필위원으로 참여하였고, 근대수용기 및 현대한국철학분야에서는 여러분들이 동참해주셨고, 전체 각 분야마다 전문교수 33분이 집필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체 편집과 교정, 발행을 맡았습니다.

〈한국철학사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 사전은 민간신앙, 민족종교, 불교, 유교, 실학, 도교, 기독교를 망라하여 고대로부터 이 땅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의 사상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과 한국인의 심성에 깊이 내재되어 생각의 원천이 된 핵심용어의 개념, 역사 속에서 각 분야별 심대한 영향을 끼친 저술들을 정리했습니다. 내용이 방대하여 항목을 선별하기가 어려웠지만, 심사숙고 끝에 한국인의 정신과 철학이라는 시각에서 보편적인 기준과 냉정한 판단으로 항목을 골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범주마다 50개의 항목을 설정했으며, 이를 다시 5개로 구분해 고대한국철학, 불교철학, 유교철학, 기독교철학, 민족종교로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50개 항목에서 시작했으나 나중에 원로 및 관련학자로부터 자문을 얻은 결과 많은 부분이 포함되게 되면서 항목도 점점 늘어나 203개의 항목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분할 때에는 6가지 기준을 갖고 나누었는데, 우선 거래의 얼을 잘 계승하고 있는가, 혹은 중국이나 인도, 일본, 서양의 철학과 분명히 구분되는 독창성, 혹은 차이가 있는가, 둘째, 동아시아나 한국내부에서 사상계 및 사회에 영향을 미쳤는가, 셋째, 나름의 체계, 논리, 원리를 갖추고 있는가, 넷째, 사상이 형성된 당대를 뛰어넘어 계승되고 발전되었는가, 다섯째, 사람과 사람사이를 이어주고 맺어주고 있는가, 여섯째 21세기 오늘의 맥락에서도 재해석되고 응용되면서 의미를 갖는가 등으로 구분했습니다.

또한 집필진도 18명의 교수진에서 33명으로 늘어나는 등 우리나라에서 철학분야에 권위 있는 분들은 모두 모셨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늘어났습니다.

한국철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철학은 근본적이고 종합적이며, 포괄적입니다. 오천년 동안 끊임없이 이어져 지금도 <국민교육헌장>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홍익인간의 건국이념은 단순히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주 삼라만상의 궁극적인 융합과 통합의 우주철학이자 참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참 행복은 함께함입니다.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행복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홍익인간은 하느님의 마음이며, 우주심이며, 공동선입니다. 이는 오천년 역사 속에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면면이 이어지면서 닦이고 닦이어 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늘과 상통함이요, 천인합일의 우주학이요, 한국철학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의 도리로 사는 우리 민족에게 수많은 외침과 동족상잔의 비극은 있었지만 하늘의 천재가 없었음은 우리 애국가 가사에 영성으로 스며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국기는 한국의 국기입니다. 한국의 국기 속에서 우주의 모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라고 게오르규(Constantin Virgil Gheorghiu)는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철학에서 종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근래에는 사회가 종교를 걱정할 정도로 종교가 많은 문제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철학을 설명할 때 종교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는 그 시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대변하는 근원적 이해의 통로가 되어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삶을 이끄는 원리이자 궁극적인 표준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의 생각과 행위의 근본지표가 되는 심원한 철학이기도 합니다. 한국철학은 원시종교 형태에서부터 유불선의 모든 종파와 사상과 철학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면면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불선이 인도나 중국 등에서는 퇴색되고 있고, 이를 추구하는 것 또한 미약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본래의 원형과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토양이 모든 종파와 철학적 사조를 폭넓게 수용하면서 계승 발전시킬 정도로 우수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한국철학이 왜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동도서기의 일시적인 물질문명 속에서 서구사람들은 한국이 중국의 문화위성국이며, 그들의 문화는 일본에 의해서 완성되었다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스스로 우리 철학을 알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역사의 초창기에 중국문화를 창조한 주인공이며, 동시에 고유문화와 철학을 지켜 보존해 주신 선조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위대한 철학을 가진 찬란한 민족임에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한국철학사전>의 발간 이후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한국철학사전>국문판이 오는 6월 중순경 발간될 예정입니다. 이 책이 발간되면 기존의 있던 개념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한국철학을 재정립한 책이기 때문에 한국철학에 있어서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철학사전>이 국문판에 그치지 않고 일본어 영어 중국어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각 영사관에 비치된다면 한국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부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책이 각 나라의 언어로 출간된다면 세계에 우리의 철학을 알리는 전령사 구실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책이 한류 붐을 타고 알려져 전 세계 지식인에게 한국철학이야말로 동방의 빛이라고 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입냄속 차장 sang@print.or.kr



박종도 대표가 운영하는 '동방의 빛'에서 최근 발행한 저작들.